

“김영란법, 스님·불자들도 각별 주의”

중앙종무기관, 법 시행 앞두고

종교계 처음으로 종무원 특강

“다른 나라에선 1970년대부터 비슷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처벌이 강력하고 규제대상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단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다. 김영란법을 주제로 종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특강에서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식사비 3만원이하’, ‘선물비 5만원이하’ 등의 규정만 생각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토대로 제정취지와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사찰과 스님, 종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강의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의 위원, 종립학교 임직원, 교계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특히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유형 조항 가운데,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5항)하거나,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8항)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한 스님이 사찰 신도로부터 학교 재임용과 관련된 요청을 받고 이를 약속했다면, 이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스님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박 교수는 부정청탁의 예외(면책)사유에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의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에 종교인이 빠진 부분은 문 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도가 스님들에게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제3자의 고충전달에 있어 성직자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고,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종단은 향후 국민권익위에서 제작한 해설집을 토대로 교육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3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무원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계 최초로 전 종무원 대상 특강을 열었다. 이날 초청 강사 박민영 동국대 교수는 ‘식사비 3만원 이하’, ‘선물비 5만원 이하’ 등의 규정만 생각하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불교계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행복바라미’ 참여독려

이동거리 4만2571km

300개 사찰 순례 회향



지난 20일 열린 워크숍에서 순례대장정 결과를 보고하는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제가 체육활동을 하면서 지구를 17바퀴 돌았습니다. 이번엔 3개월도 안 돼 지구를 한 바퀴도 더 돌았습니다.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기도 하고 민박도 하고 어촌과 농장에서도 잤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사찰이라도 의외로 탄탄한 신도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결실입니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더욱 알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300개 사찰 순례대장정을 회향했다. 지난 5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300곳의 교구본말사를 순회했다. 많게는 하루에만 10곳의 절을 찾는 강행군이였다. 신도현황을 파악하고, 중앙신도회의 모연행사인 ‘행복바라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길이었다. 출정일수는 78일, 총 이동거리는 4만2517km, 1일 평균 545km를 움직였다.

방문하는 사찰마다 신도회는 있는지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조사했다. 주지 스님들의 건의도 경청했다. 현장의 의견을 모으니 노트 10권 분량이다. 이기흥 회장은 조만간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백서를 만들어 총무원 집행부

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계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행복바라미 모금함을 300곳 사찰에 내려보내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엄청난 일을 해냈다”며 크게 칭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부터 21일까지 대전 수자원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행복바라미 워크숍에서 순례대장정 결과를 보고했다. 그가 내방했던 300곳 사찰 신도회 임원들 앞이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정종섭 유민봉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시장 등도 축하하러 왔다. 특유의 활력 넘치는 목소리로 전하는 소감과 포부는 인상적이었다. “예상 외로 군소 사찰과 오지사찰에서도 지역포교가 잘 이뤄지는 편이었다”며 매우 어려운 살림에서도 전법에 헌신하고 있는 주지 스님과 충심으로 따르는 신도들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복신앙의 만연과 탈종교화 등 이

러니저러니 해도 한국불교의 힘이 아직은 건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소득이었다”며 “일생일대의 소중한 추억을 발판으로 삼아 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가 1만3000여 명이고 한해 소송이 63만 건 발생한다. 이토록 심각한 절망과 갈등의 현실에서, 아픔을 나누어 털어주는 ‘자비’와, 이편과 저편만이 아닌 모든 것을 포용하는 ‘중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일한 해법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도 갈채를 보냈다. 포교원장 스님은 법문에서 “종단 신도단체의 수장이 전국 사찰을 일일이 돌며 현황을 알아보고 대안 모색에 나선 것은 아마도 종단사상 최초의 일일 것”이라며 “중앙신도회가 진행하는 행복바라미는 그야말로 대승불교의 육바라미에 새롭게 추가돼야 할 제7바라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이들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 달라”고 격려했다.

행복바라미의 모금 결과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3년 첫 행사 이래 2014년 1억1165만원, 2015년 1억7106만원, 올해는 8월16일까지 벌써 1억901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워크숍에서 대전바구니청림회와 군법당 등에 사비를 털어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진정성 있는 열정이 놀라운 성장을 이룬 셈이다.

대전=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원로회의법 개정안 논의

제52차 원로회의...31일

원로회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로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밑은 스님)는 오는 3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개정안 논의의 건’과 기타 사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이번 52차 원로회의에서는 2017년 4월까지 원로의원 스님 9명에 대한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의 성원 문제와 입법절차의 미비사항 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개선평안에 도출된 중앙종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종법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스님 임명

불교중앙박물관장에 전 범주사 주지 현조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현조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심과 원력,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라며, 문화부와 협조를 통해 불교성보 보존 및 환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박물관장 현조스님은 “불교성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시를 통해 불자나 일반인들에게 불교문화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러나갈겠다”며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자리를 떠난 불교성보를 되찾는 일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현조스님은 혜정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4, 15대 중앙종회의원, 국제선센터 주지, 제5교구본사 범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여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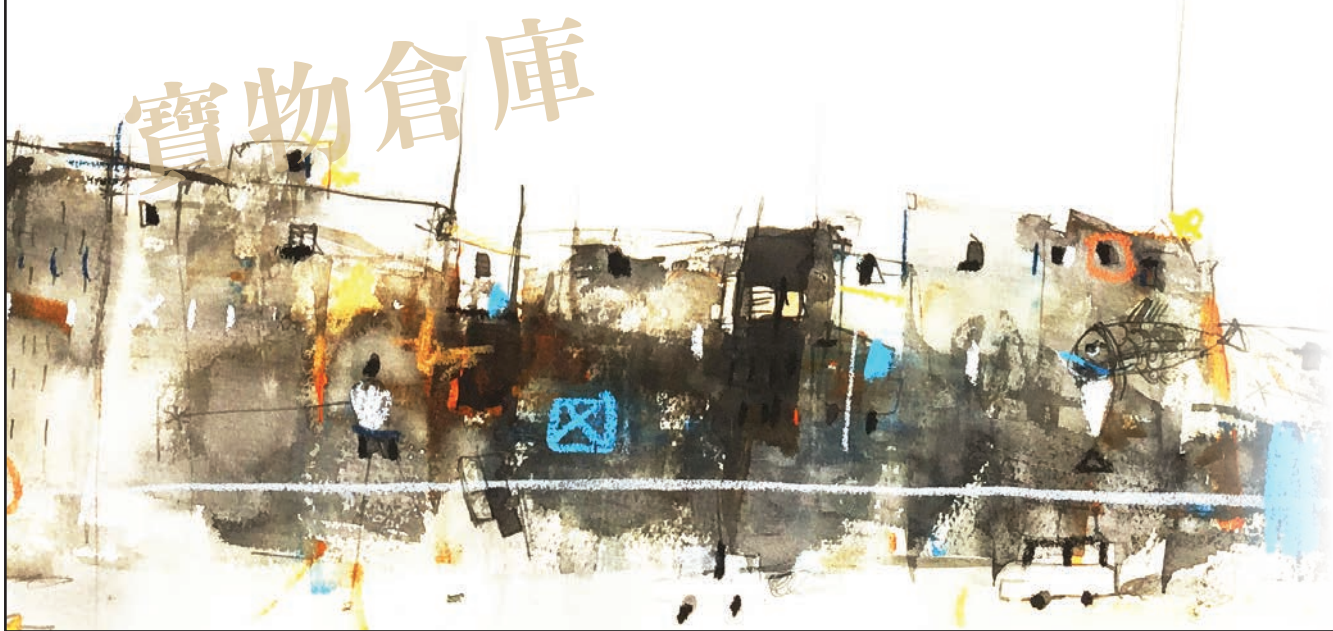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장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2540-1027)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부산 재가안거 해제 현장 5면

금강경 강송대회 여.섯.번.째

마음을 비우는 보고 금강경외우기



일시 : 2016.11.12(토)

장소 : 탄허기념박물관

- | 응시부문 | 개인전, 단체전
- | 원서접수 | 2016년 8월 1일 ~ 10월 30일
- | 접수방법 |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keumgang-sw@hanmail.net)
- | 시 상 | 2016년 11월 19일 (토) / 탄허기념박물관
- | 시상내역 | 일반부 /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300만, 우수상 각 100만원
학생부 /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단체상 / 100만원(총 3팀)
각 부분 및 수행수기, 금강경사경 특별상 수여
- | 문 의 | 금강선원 (02)445-8484 www.geumgang.org

※제세공과금 본인부담이며, 대회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 수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동일 수상은 불가합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와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최_ 오대산월정사, BTN 불교TV, 불교신문, 금강선원
주관_ 탄허기념박물관
후원_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강남구청, BBS불교방송